

2019.06.09 Clem Code.

why clem code? → Code는 한번 작성 10번 정도 읽힌다. (Running Code)

과사상 변화 대안값이 영향을 미친  
(모든 코드의 변형 기반)

결과/주제  
러미

procedural ⇒ 프로그래머가 데이터의 위치를 몰라 ⇒ 데이터의 변형이 많은 함수의 영향을 받는다

OOP ⇒ Data와 지시하는 함수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 (Interface의 변형만 있다면 외부 영향 X)

중요

⇒ 무식한게 되버리면 OOP로 이해 좋다

⇒ 다른 script 같은 procedural은 새로 관리는 듯  
(새로 관리는...)

ex. 객체는 본래 Data가 아닌 기능의 관리를 담당한다 (ex. Article Service Vs Write Article Service)

↳ 기능 자체에 WriteArticle 이 리 같은 naming + How to use what 으로 관리한다.  
(Json Request Param / Request Param)

"객체는 책임의 집합" ⇒ 객체는 약속을 가진다.

객체지향 설계 과정

1. 기능의 역할 정의 (한번)  
2. 객체별 데이터 흐름 정의  
→ 한 번에 완성되지는 X  
여러 Iteration으로 풀려 들어온다.

Encapsulation → 내부의 변화가 외부에 영향을 주면 X

Tell Don't Ask ⇒ 객체에게 요청하지 말고 만능하다

(은연중에 숨겨져 "가르쳐 줘" 라고 만능이라, 스스로 리얼리티 가르쳐 주어야 X)



Customer.hasCard() 0  
Customer.getCard().getCard() != null X

"Law of Demeter" (안 알려줘...)

→ Command (tell) ⇒ 객체 내부 상의 변형

Command vs Query

→ Query (Ask) ⇒ 객체 내부 상의 변형 X (Free of side effect)

⇒ 객체 내부 상의 Command or Query 로 이루어진다.

대부분 Return Type이 2는

✓ Command → 상어는 병행되나 Return type X (간혹  $\leq$  f  $\leq$ )

Query → 상어병행 X Return type O.

⇒ 상어는 병행되나  $\leq$ 는 병행하는 것은 좋지 않다

Poly morphism → extends  
2가지 implements ⇒ (재사용) 각 클래스의 관계의 재사용

Interface →  $\mathbb{C}$  사용  
① 나중에 추가될 수 있는 다른 내용 X  
② 관계의 재사용 → "유연"

"상어" = 재사용이 가능!

↓

"재사용"이 아닌 (의존) 인 ⇒ extends는 가장 강한 의존

Interface는 동시 상어 사용이 선택이 될 수 있다 (test로 생각해...)!

"Concrete class"는 변화가 생기면 다 수정해야함

"Interface"는 내부 클래스가 바뀌어도 상어 관계가 바뀌어도 문제는 발생함 수정하면 OK.

InterfaceType type = new ImplementType()!

(의존성)

extends ① → super class 병행 다수의 subclass에 의존이 됨

② 다중상속 불가

③ 상어 관계는 강한 상어 관계가 있다

↳ 불변 관련된 개체 f  $\leq$  있다

Composition 이 더 좋은 것

(큰 이득이 있다면 ...)